

Name: 고수현

어즈

어즈션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을 개발·공급하는 미스터마인드가 하나벤처스를 통해 15억원 규모 '프러시'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마인드는 돌봄 로봇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치매를 평가, 정서안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기업이다. 미스터마인드는 2017년 설립 후 인포뱅크, 벤처스퀘어에게 순차적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창업 특구 프로그램 템스(TIPS)에 선정된 기업이다. 아바타를 캐릭터화 강유 특화 보유하고 있고 자연어처리(NLP)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2019년 서울 만원구경을 시작으로 30여곳 지자체에 돌봄 로봇을 공급했다. 최근에는 충청북도 원산강역시 등에 로봇을 제공했다. 서울 동대문구를 캐릭터로 제작한 '곰돌이'와 경상북도 의성군의 '자두'가 등이 모두 미스터마인드가 제작한 돌봄 로봇이다. 이 로봇은 어르신의 정서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미스터마인드는 로봇과 어르신의 대화, 자기보고형 설문(SMCO, GDS)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르신의 정서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로봇은 치매의 우울증, 자살, 고독사 등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 이 로봇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보조할 수 있다. 응급대처 기능을 탑재해 하루에 10~20회 정도 어르신에게 경음이 울릴 것이다. 즉 복음 사인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르신과 인공대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권동원 미스터마인드 대표는 <AI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사람의 일을 대체할 AI 비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AI와 예술을 접목한 온라인 공간은 세로로만 아쉽게도 했다. 예술 제형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연극물의 품격도 사설 앱 기능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컴퓨터데이터 다운은 단순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자막 기능이 없어 청각 장애인 등 듣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